

축하문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 참가자들에게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관심과 은 나라 전체 학생소년들의 높은 열의와 기대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90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 답사길을 열어주시는 40돐을 맞으며 전국 학생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에 성파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사후치는 그리움을 안고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떠나 한겨울의 추위와 사나운 눈보라를 용감히 이겨내며 포령에 무사히 도착한 전체 답사행군참가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10대의 어린시 나이에 단신으로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은 강도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와 사생결단의 의지를 력사의 순간순간에 새긴 혁명의 천리길이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새 기린을 열어놓은 영광의 길이었다.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때로부터 한평생 조국과 혁명,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와 현명한 령도하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이 구원되고 이 땅에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가 일떠섰으며 우리 인

민의 궁지높고 행복찬 생활이 마련되었다.

일찌기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에 학생소년들의 가슴속에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신념의 기둥을 세워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40년전 광복의 천리길답사행군을 전국적규모에서 의의있게 조직하고 진동화하도록 하시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의 후배대, 골간으로 여세게 키우기 위한 전환적기회를 열어주시었으며 수령을 따라배우는 충정의 발걸음소리가 조국강산에 세세년년 영원히 울려다지게 하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후대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학생소년들을 선군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고 이끌어주는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9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답사길을 열어주시는 40돐을 맞으며 전국학생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을 크게 진흥하도록 하고 참가자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었으며 아무런 불편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온갖 대책을 다 취해 주는 크나큰 은정을 들러주었다.

우리 학생소년들이 진행한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은 영원불멸한 력사의 길에 아로새겨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혁명의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을

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굳건히 이어가려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자랑스러운 새 세대들의 충정의 행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자취를 따라 답사행군을 진행하면서 학생소년들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였으며 혁명의 눈보라천리길, 만리길을 대를 이어 뜻깊게 걸어가는 새 세대 청년전위, 소년혁명가로 자라날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다.

답사행군과정에 학생소년들은 최세의 선군정신을 높이 모시어 젊음으로 약동하는 내 조국의 자랑찬 모습과 사회주의대가의 향기를 작은 가슴마다에 가득 담아안았으며 그림같이 아름다운 내 나라의 귀중한 숨을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다.

답사행군에 참가한 학생소년들은 어렵고 힘든 천리행군과정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한 집단주의정신과 끈반을 맞바꾸어 이겨내는 강한 의지, 자립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였으며 육체적으로 단련되고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휘날리며 우리 학생소년들이 진행한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은 위대한 당의 뜻과 따라 배우는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부모형제들과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9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 답사길을 열어주시는 40돐 기념 답사행군 참가자들이 당을 따라 혁명의 천리길에 여세를 걸어가려는 계승자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사상과 의지로 숨쉬며 당의 두리터 성벽을 이루고 당을 따라 끝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는 두려운것이 없고 뜻해 별 일이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학생소년들앞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 참가자들과

전국의 학생소년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인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며 일련단신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르는 선군혁명의 후배대로 여세를 준비하여야 한다.

학생소년들은 《조선을 위하여 배운 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분초를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하며 아름답고 고상한 도덕 품성을 지니고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 지역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기동간으로, 유능한 인력으로 자라나야 한다.

학생소년들은 당원의 영애와 영웅의 고향메달도 청년동맹조직생활과 소년단조직생활에서부터 시작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조직성과 규율성, 집단주의정신을 적극 배양해나가야 한다.

학생소년들은 고향마을과 조국산천의 꽃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알뜰히 가꾸며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나어린 김정일애국주의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려하는것을 굳게 믿는다.

건 일흔들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여러가지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전국의 학생소년들은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위장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어려서부터 총대를 사랑하며 만약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온다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적소년빨치산들처럼 용감히 밀려나 나서자란 고향마을과 학교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 참가자들은 행군과정에 다진 맹세를 언제나 잊지 말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당을 따르는 마음의 행군, 신념의 행군을 계속해나가며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동무들의 모범이 되고 집단을 이끌어가는 책임이 되어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 참가자들과 전국의 모든 학생소년들이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태양기를 청년동맹기와 소년단기일에 휘날리며 당중앙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끝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참된 청년전위, 선군근위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려하는것을 굳게 믿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 104(2015)년 2월 3일

전국 학생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대 포평 도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90돐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광복의 천리길 답사길을 열어주시는 40돐 기념 전국학생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에 성파적으로 끝났다.

혁명의 성지 만경대에서 1월 22일에 출발한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나타왔을 큰 뜻을 품고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포령을 따라 행군을 다그쳐 3일 포령에 도착하였다.

포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0대의 어린시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너신 력사의 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를 진두에 모시고 포령대기발과 붉은기들을 휘날리면서 보부당당히 포령땅에 들어서시는 답사행군대원들을 감동적근대 학생소년들과 근로자들로 열렬히 환영하였다.

이날 포령땅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앞에서 전국학생소년들의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대 도착

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 장소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자!》,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따라 배우는 행군길을 뜻깊게 이어가자!》라는 구호판들이 모임장소에 세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해동지와 판계부부, 청년동맹일꾼들,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답사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앞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서는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최봉해동지가 전달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을 격정 속에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혁명의 계승자들에 대한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백두밀림에서 개최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학생소년들의 답사행군에 깊은 관심을 들리시고 결을결을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 답사행군은 력사의 길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과 열렬한 조국애를 가슴깊이 체득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대, 선군혁명의 대를 뜻깊이

이어 나갈 불타는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우리 학생소년들앞에는 당중앙위원회의 축하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닌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학생소년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영인로 해님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언제나 끝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대하여 언급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좋은 일들을 더 많이 찾아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지시경제시대의 주인, 철만기술의 개척자가 되겠다는 배심을

가지고 열심히 학습하며 고상한 도덕품성과 튼튼한 체력을 갖춘 선군조선의 여세 기동간들로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체 답사행군대원들이 광복의 천리길

할,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 운동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콜롬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 마이트리팔라 씨리세나각하

나는 스리랑카 독립 67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경제개발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를 있을것을 축인 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4(2015)년 2월 2일 평양

2월이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 열렬한 그리움, 영생축원의 마음안고 충정의 자취를 새겨는 천만민들의 가슴마다에 오늘날도 뜨겁게 안겨지는것이 있다.

애오라지 인민을 위해,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앞장에서 헤치신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길이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장군님께서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였습니다.》

그날은 주제 87(1998)년 1월 16일, 대한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날 이른 아침 평화 30°C를 으르러는 흑한속을 헤치고 가장도를 찾으시였다. 이 땅의 곳곳마다에 중수형

발전소들을 일떠세워 긴장한 전기문제를 풀고 강성번영의 새봄이 땅에 펼쳐지려는 의지를 안시고 친히 눈보라강행군을 단행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침일찍부터 눈보라강을 초강도강행군으로 헤치시며 도인의 수많은 단위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장계시 복천의우개시발전소, 장강 1호발전소, 장강군공농업발전소, 토목건설발전소에 이어 장강 2호발전소, 장강군 555동의 전기화된 살림집, 강계시 장자산발전소 그리고 어느 한 종합공장과 강계시 복천 3호발전소...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점심시간이 켜지자마자 열차에서 야간시사를 하시고 저녁늦게까지 수많은 단위를 찾고찾으셨고 눈보라강행군길, 초강도강행군길을 자욱자욱 따르느라만 단산인들이 격정을 불러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종일토록 현지지도의 길을 헤치시며 어느 한 단위를 돌아보셨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 수행원들은 날이 어두웠는데 오늘은 그만하 시라기를 간절히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 일정에 계획에 중수형발전소가 하나 더 있지 않가고 그늘에 물이없었다. 수행원들은 날이 어두웠다고 거듭 말씀드리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과 안병을 바라는 인민의 마음이 담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5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함경남도현지지도 50돐 기념보고회가 3일 함흥대극장에서 진행되었다.

도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함경남도당 위원회 비서 김영규는 기념보고회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54(1965)년 2월 당시의 함남비료공장, 2, 8비료공장, 통성기계공장과 함흥모방직공장건설을 비롯한 여러 단위를 찾으시고 나아가길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바이수령님께서 함남비료공장 건설을 확대되게 하시니 결전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설비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우리의 단위는 무엇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멋있게 들어서야 할것인가.

자기 부분, 자기 단위의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우리 일꾼들이 어떤 모습으로 실장을 불태우야 할터이다.

모든 일꾼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싸우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면 10월의 대축전장과 맞닿은 모든 전역에서 전례없는 비약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의 지휘선원들인 일꾼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적대적분쟁의 책동을 과감히 짓고서 최후승리를 앞당겨야 하는 오늘의 총공격전은 우리 혁명의 전진선이다.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용감무쌍하게 실천할것을 요구하였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의 사업성과는 전적으로 일꾼들에

등 비료증산을 위한 중요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2, 8비료공장, 중수화학공업부 및 과학원 합성분리 일꾼들의회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화학비료와 비닐, 대상설비, 화학제품생산을 높이고 농업과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바이수령님의 사업을 보라해드리시면서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영웅적투쟁과 위훈창조의 나래를 펼쳐주시고 그들을 수령님의 현지지도시찰을 통하여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고 강조했다.

보고자는 절세위인들의 력사

적인 현지지도는 도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고 하면서 지난 50년간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 8비료공장합기업소와 함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과감히 벌어져 주체비료공과 화학비료생성이 늘어나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통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기 세차게 타올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대상설비와 철만설비까지 마옵먹은대로 생산하는 나라의 위대한 대기계제작기지로 자랑될치요있는데 대하여 강조했다.

함흥모방직공장에 새로운 생

산공정이 꾸러지고 함흥편직공장이 현대화되는 등 중공업공장의 생산능력이 훨씬 높아졌으며 동해인의 불타는 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에서 혁신적성과가 이룩되고 사회주의문명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칭찬하고 올해 국가과학원 합성분리을 비롯한 과학연구기관들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더 많이 내놓으며 농산과축산, 수산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전력생산을 부단히 늘이는것과 함께 중수형발전소건설을 다

으며 자기 단위를 기적속으로 앞진출시키는 일꾼들이 실지에서 힘차게 달려오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야 한다.

일꾼들이 들어서 오면 열도는 절대급물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문제에서는 중요일과 부차적일 것이 따로 없다.

오늘은 이것을 하느라 바르르 땀 흘려야 하고 배를 뜨는것은 일꾼들이 특별히 경계하여야 할 일본이다.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 때까지 무조건 끝장을 보는 일꾼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실적이 탐이 높아높이 쌓여가야 한다.

불타는 사업의 욕과 최대의 마력,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꾼들에게서 바라시는 기백과 열정이다.

바로 이런 일꾼이라야 비상한 실천력으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일꾼들은 자기 부분, 자기 단위가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오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야 한다.

일꾼들이 들어서 오면 열도는 절대급물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문제에서는 중요일과 부차적일 것이 따로 없다.

오늘은 이것을 하느라 바르르 땀 흘려야 하고 배를 뜨는것은 일꾼들이 특별히 경계하여야 할 일본이다.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 때까지 무조건 끝장을 보는 일꾼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실적이 탐이 높아높이 쌓여가야 한다.

불타는 사업의 욕과 최대의 마력,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꾼들에게서 바라시는 기백과 열정이다.

바로 이런 일꾼이라야 비상한 실천력으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양정에서 헤치신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길이다.

실천가형 일꾼

오늘 우리 당은 일꾼들이 말보다 실천으로 당을 받들것을 요구한다.

일꾼들의 실천력은 높은 책임성으로 하여 담보된다.

당앞에 맡은 일을 다하려는 직무에 대한 높은 자각과 각오인 책임성, 그것은 일꾼들이 사업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당과 혁명앞에 스스로 걸머진 의무이며 현실성이다.

일꾼들의 책임성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때문에 오늘 우리 당은 일꾼들이 자기 부분, 자기 단위의 사

실천한 사람이다.

일꾼은 우선 정열가가 되어야 한다.

강철도 녹일수 있는 그런 정열이 우리 일꾼들의 온몸에서 불타야 한다.

불타는 사업의 욕과 최대의 마력,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꾼들에게서 바라시는 기백과 열정이다.

바로 이런 일꾼이라야 비상한 실천력으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실천한 사람이다.

일꾼은 우선 정열가가 되어야 한다.

강철도 녹일수 있는 그런 정열이 우리 일꾼들의 온몸에서 불타야 한다.

불타는 사업의 욕과 최대의 마력,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일꾼들에게서 바라시는 기백과 열정이다.

바로 이런 일꾼이라야 비상한 실천력으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 전위투사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뿔뿔히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피뵈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앞에는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할 중대하고도 절박한 과업이 나섰고있다. 우리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완수하여 나라의 산림실태를 바로 잡고 복구대책을 현실성있게 과학기술적으로 세워 끝장을 볼 때까지 실현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얼마전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지난해 중앙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하시며 산림복구를 자원으로 전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벌리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는 우리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김정준: 나라의 산림을 맡아보는 국토부 문 책임일군으로서 참으로 자책되는바가 크다.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울창한 산림이 덮여있었으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여러가지 원인으로 적지 않은 산림면적이 줄어들었다. 산 좋고 물 맑아 예로부터 삼천리금강산으로 불리워온 우리나라에서 오늘 산림조성과 보호는 절박한 문제로 나섰고있다.

산림이 파괴되면 토지가 류실되며 애써 마련해놓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원을 피폐케 하게 된다.

몇해전 단천시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최대의 중대사

나라의 산림실태와 복구대책을 놓고 국토환경보호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것도 산림면적이 줄어든데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

자료를 의하면 1시간동안에 10~20mm의 비가 내렸을 때 산림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면을 따라 흐르는 비물의 양이 10%미만이지만 산림이 없는 경우에는 70~80%나 된다고 한다.

문물피해뿐만이 아니다. 가물도 이겨내기 힘들다.

이상기후현상으로 현시기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물부족현상이 나타나고있는데 이것은 산마다 푸른 숲이 우거지지 못한것과도 크게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무성한 산림인 경우에 정방양수량[㎥], 원시림인 경우에는 1,000[㎥]이상의 물을 저장할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놓고보면 지난해에 신원, 병변군을 비롯한 여러 군이 농사에서 물고생을 많이 한것은 산림면적이 줄어든 결과 저수지에 흘러들어야 할 물량이 적어졌기때문이다.

이런 실태가 지속되면 앞으로 식수사업 자체도 어렵게 된다.

보통 1cm의 토양이 형성되려면 자연조건에서 100년이상 걸린다. 그런데 나무가 없으면 토양이 씻겨내려가는것은 순간이다.

만약 앞으로 몇년안에 벌거숭이산에서 토양이 모두 씻겨내리고 그때에 가서 나무를 심지만 지금보다 몇십배의 품을 들여야 할것이다.

기자: 들고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이 융합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고있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셨으면 한다.

김명철: 당에서는 나무 한대를 베면 백대를 심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근본원인은 바로 당정책을 써에 쏘아

박두 새겨안지 못한데 있다.

산림을 조성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나무를 찍어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나무 한대를 베면 백대를 심을때 대한 당정책을 말로만 외우면서 나무심기를 마치 남을 도와주는 일처럼 생각하고있다.

당정책을 삶의 좌우명으로 여기지 않고 산림조성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창도, 김화군을 비롯한 일부 시, 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 불철식수때에도 나무심기를 질적으로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계획체제를 실시 미달하였다. 이런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산림조성정책이 조국을 위한 일이자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원인은 다음으로 나무모생산을 늘이지 못하고있는데도 있다. 양묘장을 잘 꾸리고 물절기속도대를 튼튼히 다지여 많은 나무모들을 생산하여야 하겠으나 박철, 홍원군을 비롯한 일부 군산림경영소들에서는 아직까지 나무모생형기도 갖추지 못하고있으며 야외재배장도 제대로 꾸리지 않고있다.

이렇게 된다는 산림경영소주인들에게도 결함이 있지만 해당 지역 책임일군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곳 일군들은 양묘장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전투적으로 내밀 생각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조건타만 앞세우고있다. 그렇다면 선천, 송원, 창성군을 비롯하여 수림화, 원림화사업에서 앞장선 군들에서는 무엇이 잘못이 좋은 양묘장들을 훌륭히 꾸렸겠는가. 애국의 마음이 합철될 때 황금산, 보물산이 이루어진다는것을 명심하고 분발해야 한다.

나무의 사름들을 높이지 못하고 심은 나무

무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지 못하는것도 문제이다.

일부 도, 시, 군들에서는 양묘장들에서 나무모를 떠다가 거리와 공원, 유원지에 심는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 심는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있으며 심을때에도 기술적요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있다. 또한 국가의 리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단위의 리익만 앞세우면서 잡다한 일로 나무를 망탕 베어 리용하고있다.

산림부문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다. 여러가지 명목으로 다른 사업에 동원시켜 산림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나무모생산을 비롯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 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지난 시기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하면 푸른 숲을 가꾸어가는 산림감독원들을 먼저 생각하였다. 예술영화 《숲은 설레인다》가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무모생산을 추진하다 훨씬 늘어났다. 이 와 함께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들을 계속 확보하면서 채종면적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산에서 복도 나고 화도 나온다는것을 명심하고 조국이 부르는 높고낮은 산들에 떠나없이 달려나간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고 가꾸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과 지대의 기후와 토양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대 기초하여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나무를 심어야 하며 나무의 생장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도록 바늘잎나무와 넓은 잎나무를 배합하여 심어야 한다. 나무를 기를수있는 요구대로 정성을 들여 심고 심은 다음에는 물도 주고 풀과 잡관목같은것을 베어주면서 관리를 잘하여 심은 나무들이

김성준: 무엇보다도 도, 시, 군들에서는 산림복구를 위한 지휘부를 튼튼히 꾸리고 역할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지휘부에서는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며 지대적특성, 현실적조건을 반영한 년차별계획과 전망계획을 옹호로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기관, 기업소들에 나무심기과제를 명백히 주고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며 심은 나무를 책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은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떠나서 나무모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수 없으며 사름률도 90%이상 보장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도, 시, 군들에서는 중앙양묘장과 같은 양묘장들을 곳곳에 건설하여 공업적방법으로 나무모생산을 추진하다 훨씬 늘어났다. 이 와 함께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들을 계속 확보하면서 채종면적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산에서 복도 나고 화도 나온다는것을 명심하고 조국이 부르는 높고낮은 산들에 떠나없이 달려나간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고 가꾸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과 지대의 기후와 토양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대 기초하여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나무를 심어야 하며 나무의 생장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수 있도록 바늘잎나무와 넓은 잎나무를 배합하여 심어야 한다. 나무를 기를수있는 요구대로 정성을 들여 심고 심은 다음에는 물도 주고 풀과 잡관목같은것을 베어주면서 관리를 잘하여 심은 나무들이

죽지 않고 다 잘 자라도록 하여야 한다.

나무심기를 대대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산림보호이자 토지보호, 생태환경보호, 경제보호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숲을 보충하고 감독통제하기 위한 사업도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산불과 병해충피해대책을 세우는데 무엇보다 힘을 넣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의 당, 행정일군들은 맹장 문제해결이자 산림보호라는 관점에서 뭘나 무림을 잘 조성하며 초무연탄과 버려진, 메탄가스 등을 맹장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

산림부문에서는 기관, 기업소들에서 나무 한대를 베면 백대를 심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도높이 진행하여야 한다. 산림감독원들은 조국의 만년태부가 자기들의 어깨에 짊어졌다는 공민적자각과 의무를 지니고 깨끗한 함성을 바쳐 푸른 숲을 가꾸어가야 한다.

김정준: 산림복구전투의 포성은 울렸다. 자연과의 이 전쟁에서 앞자리에 설 사람들은 다름아닌 우리 일군들이다. 우리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해나갈것이다. 자기 부문을, 자기 단위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림장에서 패배주의, 보신주의, 오랑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것이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신림축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애국헌신의 기쁨을 높이 발휘하였다. 이 땅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러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자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도 승결도 밟을것을 같이하며 조국의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주인답게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본사기자 윤 용 호

본사기자 주 창 일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농장에서는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산을 리용하여 풀벌레를 치니 리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풀을 공급해주게 되었고 먹는 기쁨, 건설용목재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른아침 숲길에서 새겨진 당일군의 발자국을 어찌 무시히 대할수 있나.

농길에 새겨진 이 새벽의 첫발자국은 말하고있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야 한다고, 온 산반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찍혀져야 한다고, 양묘본초장은 리당일군의 그 발자국을 애국의 호소로 소중히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농장에서는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산을 리용하여 풀벌레를 치니 리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풀을 공급해주게 되었고 먹는 기쁨, 건설용목재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른아침 숲길에서 새겨진 당일군의 발자국을 어찌 무시히 대할수 있나.

농길에 새겨진 이 새벽의 첫발자국은 말하고있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야 한다고, 온 산반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찍혀져야 한다고, 양묘본초장은 리당일군의 그 발자국을 애국의 호소로 소중히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농장에서는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산을 리용하여 풀벌레를 치니 리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풀을 공급해주게 되었고 먹는 기쁨, 건설용목재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른아침 숲길에서 새겨진 당일군의 발자국을 어찌 무시히 대할수 있나.

농길에 새겨진 이 새벽의 첫발자국은 말하고있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야 한다고, 온 산반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찍혀져야 한다고, 양묘본초장은 리당일군의 그 발자국을 애국의 호소로 소중히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농장에서는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산을 리용하여 풀벌레를 치니 리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풀을 공급해주게 되었고 먹는 기쁨, 건설용목재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른아침 숲길에서 새겨진 당일군의 발자국을 어찌 무시히 대할수 있나.

농길에 새겨진 이 새벽의 첫발자국은 말하고있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야 한다고, 온 산반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찍혀져야 한다고, 양묘본초장은 리당일군의 그 발자국을 애국의 호소로 소중히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농장에서는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산을 리용하여 풀벌레를 치니 리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풀을 공급해주게 되었고 먹는 기쁨, 건설용목재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른아침 숲길에서 새겨진 당일군의 발자국을 어찌 무시히 대할수 있나.

농길에 새겨진 이 새벽의 첫발자국은 말하고있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야 한다고, 온 산반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찍혀져야 한다고, 양묘본초장은 리당일군의 그 발자국을 애국의 호소로 소중히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농장에서는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산을 리용하여 풀벌레를 치니 리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풀을 공급해주게 되었고 먹는 기쁨, 건설용목재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른아침 숲길에서 새겨진 당일군의 발자국을 어찌 무시히 대할수 있나.

농길에 새겨진 이 새벽의 첫발자국은 말하고있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야 한다고, 온 산반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찍혀져야 한다고, 양묘본초장은 리당일군의 그 발자국을 애국의 호소로 소중히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농장에서는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산을 리용하여 풀벌레를 치니 리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풀을 공급해주게 되었고 먹는 기쁨, 건설용목재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른아침 숲길에서 새겨진 당일군의 발자국을 어찌 무시히 대할수 있나.

농길에 새겨진 이 새벽의 첫발자국은 말하고있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야 한다고, 온 산반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찍혀져야 한다고, 양묘본초장은 리당일군의 그 발자국을 애국의 호소로 소중히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농장에서는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산을 리용하여 풀벌레를 치니 리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풀을 공급해주게 되었고 먹는 기쁨, 건설용목재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른아침 숲길에서 새겨진 당일군의 발자국을 어찌 무시히 대할수 있나.

농길에 새겨진 이 새벽의 첫발자국은 말하고있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야 한다고, 온 산반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찍혀져야 한다고, 양묘본초장은 리당일군의 그 발자국을 애국의 호소로 소중히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농장에서는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산을 리용하여 풀벌레를 치니 리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풀을 공급해주게 되었고 먹는 기쁨, 건설용목재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른아침 숲길에서 새겨진 당일군의 발자국을 어찌 무시히 대할수 있나.

농길에 새겨진 이 새벽의 첫발자국은 말하고있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야 한다고, 온 산반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찍혀져야 한다고, 양묘본초장은 리당일군의 그 발자국을 애국의 호소로 소중히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농장에서는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산을 리용하여 풀벌레를 치니 리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풀을 공급해주게 되었고 먹는 기쁨, 건설용목재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른아침 숲길에서 새겨진 당일군의 발자국을 어찌 무시히 대할수 있나.

농길에 새겨진 이 새벽의 첫발자국은 말하고있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야 한다고, 온 산반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찍혀져야 한다고, 양묘본초장은 리당일군의 그 발자국을 애국의 호소로 소중히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농장에서는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산을 리용하여 풀벌레를 치니 리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풀을 공급해주게 되었고 먹는 기쁨, 건설용목재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른아침 숲길에서 새겨진 당일군의 발자국을 어찌 무시히 대할수 있나.

농길에 새겨진 이 새벽의 첫발자국은 말하고있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야 한다고, 온 산반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찍혀져야 한다고, 양묘본초장은 리당일군의 그 발자국을 애국의 호소로 소중히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농장에서는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산을 리용하여 풀벌레를 치니 리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풀을 공급해주게 되었고 먹는 기쁨, 건설용목재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른아침 숲길에서 새겨진 당일군의 발자국을 어찌 무시히 대할수 있나.

농길에 새겨진 이 새벽의 첫발자국은 말하고있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야 한다고, 온 산반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찍혀져야 한다고, 양묘본초장은 리당일군의 그 발자국을 애국의 호소로 소중히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농장에서는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산을 리용하여 풀벌레를 치니 리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풀을 공급해주게 되었고 먹는 기쁨, 건설용목재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른아침 숲길에서 새겨진 당일군의 발자국을 어찌 무시히 대할수 있나.

농길에 새겨진 이 새벽의 첫발자국은 말하고있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야 한다고, 온 산반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찍혀져야 한다고, 양묘본초장은 리당일군의 그 발자국을 애국의 호소로 소중히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농장에서는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산을 리용하여 풀벌레를 치니 리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풀을 공급해주게 되었고 먹는 기쁨, 건설용목재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른아침 숲길에서 새겨진 당일군의 발자국을 어찌 무시히 대할수 있나.

농길에 새겨진 이 새벽의 첫발자국은 말하고있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야 한다고, 온 산반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찍혀져야 한다고, 양묘본초장은 리당일군의 그 발자국을 애국의 호소로 소중히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농장에서는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산을 리용하여 풀벌레를 치니 리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풀을 공급해주게 되었고 먹는 기쁨, 건설용목재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른아침 숲길에서 새겨진 당일군의 발자국을 어찌 무시히 대할수 있나.

농길에 새겨진 이 새벽의 첫발자국은 말하고있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야 한다고, 온 산반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찍혀져야 한다고, 양묘본초장은 리당일군의 그 발자국을 애국의 호소로 소중히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안되어 농장에서는 그 덕을 보게 되었다. 산을 리용하여 풀벌레를 치니 리안의 유치원, 탁아소어린이들과 산모들에게 풀을 공급해주게 되었고 먹는 기쁨, 건설용목재문제도 적지 않게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른아침 숲길에서 새겨진 당일군의 발자국을 어찌 무시히 대할수 있나.

농길에 새겨진 이 새벽의 첫발자국은 말하고있었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산림복구전투의 맨 앞장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찍혀져야 한다고, 온 산반에 우리 일군들의 발자국이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찍혀져야 한다고, 양묘본초장은 리당일군의 그 발자국을 애국의 호소로 소중히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채 인 철

를 해마다 늘이지 않았는가. 양묘본초에서 키운 아카시

나무, 밤나무, 수유나무 등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농장에서서 해마다 나무심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변산들이 점차 푸르러지기 시작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을 저해하는 이중적자세

지금 남조선당국은 그 어느때보다도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해 요란히 떠들고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놓고서 는 누구도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시대의 요구와 거리의 현실같은 요구 에 못 이겨 앞에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 도 돌아앉아서는 대결의 못된 버릇을 버 리지 못하고 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반공 화국도발에 광분하고있는것이 바로 남 조선당국의 정세이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정권자는 업무보고 를 받는 자리에서 《통일준비를 위한 실 질적대화》에 대해 운운하면서 《대화 의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라는 귀찮 은 소리를 날아놓았다. 하지만 남조선 당국자들은 실제행동은 과연 어떠한가. 북남대화에 대해 끝날 운운하던 남조 선전권자자체가 불순하게 떠이 없는 그 누구의 《변화》에 대해 떠들며 대결정 심을 드러냈는가 하면 《확고한 안보와 대응능력을 확보》하게 갖추는것이 《대화의 전제》라고 기업을 토하였다. 남조선군부초전권자는 북침전쟁연습을 중단할때 대한 우려의 요구에 《대화보 위기와의 상관없다》. 《미국과의 연합체제가 있는 한 합동군사연습은 계속될것》이라느니 하는 도발적인동을 일삼으면서 새해백두봉위 불장난소동을 요란하게 벌여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 었고있다. 남조선국방부는 이미 3월초 부대 《기 리랄라》, 《독수리》 합동군사 연습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것을 공 인한 상태이다. 남조선통일부도 그 무슨 《표현의 자유》라는 궁한 나팔을 계속 불어대며 인간스펙기들의 반공화국 배라살포망등을 극구 추동해고있다. 지 어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 막기 위한 미국의 남강도적인 반공화국 제재강화요청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는 그악한 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팔파 행동이 다른 남조선당국의 광범 주의적인 처사도 말미암아 북남대화와 협상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못하고있고 더 더 관계개선의 전도는 나날이 후퇴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이 판관 다른 말과 행 동으로 거세를 실시시키지 말데 대하여 는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배라살포놀음의 판을 더 크게 벌렸으며 《망어혼편》 《엑스 썬더》와 같은 대규모적인 북침 진정연습을 광범적으로 감행하였다. 결 국 북남대화로 관계개선의 문을 열려던 우리의 노력이고 어떤 결실도 맺지 못 한채 지난해가 지나가고말았다.

민중분열의 70년력사가 바로 그런 비극으로 얼룩져있다.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노력으로 조국통 일3대원칙이 마련되고 북남사이 대화 와 협상의 물고기가 트이던 지난 세기 70년대를 돌이켜보자. 당시 내외의 격 려한 요구와 대세의 흐름에 밀리워 마지 못해 대화마당에 끌려나온 남조선당국자 들은 우리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 는 7.4 공동성명에 맞닿음을 들었다. 하 지만 돌아앉아서는 《몇장의 성명애 운명 을 점칠수 없다.》느니, 《기대를 가지 지 말라.》느니 하고 악담판처럼 공동성 명을 뒤엎어놓은 용남 배신행위를 감행 하였다. 그리고는 《실력배양》과 《승조동일》을 대결정책으로 내걸고 이 세와 아합하여 반공화국도발과 북침전쟁 책동을 피논이 되어 날뛰었다.

지난 세기 80년대와 90년대에 초에 뜨겁게 불타오른 거세의 통일열망에 떠 날떠려 북남사이 대화의 특질인 양, 총 리 회담을 비롯한 여러 갈래의 회담들이 작되었다. 하지만 그 어느때도 북남관계 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였 다. 전두환군부독재자는 북남대화에 대 해 《환상이나 성급한 기대》를 가지지 말라느니, 《북파는 대결만이 있을뿐》 이라느니 하고 폭언하면서 극도의 대결 상태를 조성하였다. 《신외구속》과 《강장완화》에 대해 위태대며 우리와 대 화를 통해 여러가지 합의를 이룩하고 서 도 대결판판을 버리지 못하고 의사와 아합하여 반공화국도발을 집요하게 감 행한 로씨워역노나 입으로는 《같은 인 행》이라 뉘우더니 사실은 북남관계개 선에 앞장섰다고 집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죽어 가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가 인간살육 에 미쳐넘어선 미국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단죄하며 인권유린 국, 악마제국에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있다. 세계도에서 반미성정을 호 소하는 목소리가 울려오고 미 국내에서도 정부의 침략정책에 항의하는 백만방파음이 높아가 고있는 때에 백악관을 거랑한 무인기가 날아들었다는 얘기가 돌았다.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세계최고수준의 경 호》를 자랑하는 백악관 비밀경 호국의 요원들이 무인기가 날아 오는 소리로 듣고 백악관당장을 넘어오느라 목격하고서도 속 수무적으로 변히 비라보고만 있 는 사실은 미국제비총을 아연케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무인기공습행은 날 이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다. 미국은 무인기 《미군의 생 명을 대신해서 천사》라고 공공연 히 떠들면서 무차별적인 무인 기공습행으로 《미군의 생 명》 대신에 무고한 민간인들의 목숨을 빼앗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리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니스탄, 예멘 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들 에서 《테러보통을 소탕》한 다는 구실밑에 감행하는 미국의 광란적인 무인기공습으로 수많 은 나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미국내에서 무인기사용에 대한 규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력 설하였다. 백악관도 대책마련에 골머리 를 앓고있다. 고작 너비 61cm짜 리 소형무인기에 흔비백산한 미 국의 거대한 처지는 최는능 겁부터 멀리는 적인 그대로이다. 《탄베로》의 미명하에 다 른 나라들에 대한 야만적인 무 인기공습행은 일삼고있는 미 국으로서는 잊을지 모르는 비가 너무도 엄청난 인제 어디에서 어떤 정병이 가해질지 알수 없 는 불안전과 공포에 휩싸여있다.

더우기 무인기에 의한 공격의 위험성을 잘 알고있기에 이번 사건을 놓고 벌벌 떨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저들스스로가 무인 기는 파괴력과 살상력이 높고 가장 막기 힘든 공격수단이라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미국의 무인기공습행은 날 이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다. 미국은 무인기 《미군의 생 명을 대신해서 천사》라고 공공연 히 떠들면서 무차별적인 무인 기공습행으로 《미군의 생 명》 대신에 무고한 민간인들의 목숨을 빼앗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리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니스탄, 예멘 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들 에서 《테러보통을 소탕》한 다는 구실밑에 감행하는 미국의 광란적인 무인기공습으로 수많 은 나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죽어 가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가 인간살육 에 미쳐넘어선 미국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단죄하며 인권유린 국, 악마제국에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있다. 세계도에서 반미성정을 호 소하는 목소리가 울려오고 미 국내에서도 정부의 침략정책에 항의하는 백만방파음이 높아가 고있는 때에 백악관을 거랑한 무인기가 날아들었다는 얘기가 돌았다.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세계최고수준의 경 호》를 자랑하는 백악관 비밀경 호국의 요원들이 무인기가 날아 오는 소리로 듣고 백악관당장을 넘어오느라 목격하고서도 속 수무적으로 변히 비라보고만 있 는 사실은 미국제비총을 아연케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무인기공습행은 날 이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다. 미국은 무인기 《미군의 생 명을 대신해서 천사》라고 공공연 히 떠들면서 무차별적인 무인 기공습행으로 《미군의 생 명》 대신에 무고한 민간인들의 목숨을 빼앗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리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니스탄, 예멘 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들 에서 《테러보통을 소탕》한 다는 구실밑에 감행하는 미국의 광란적인 무인기공습으로 수많 은 나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죽어 가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가 인간살육 에 미쳐넘어선 미국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단죄하며 인권유린 국, 악마제국에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있다. 세계도에서 반미성정을 호 소하는 목소리가 울려오고 미 국내에서도 정부의 침략정책에 항의하는 백만방파음이 높아가 고있는 때에 백악관을 거랑한 무인기가 날아들었다는 얘기가 돌았다.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세계최고수준의 경 호》를 자랑하는 백악관 비밀경 호국의 요원들이 무인기가 날아 오는 소리로 듣고 백악관당장을 넘어오느라 목격하고서도 속 수무적으로 변히 비라보고만 있 는 사실은 미국제비총을 아연케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무인기공습행은 날 이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다. 미국은 무인기 《미군의 생 명을 대신해서 천사》라고 공공연 히 떠들면서 무차별적인 무인 기공습행으로 《미군의 생 명》 대신에 무고한 민간인들의 목숨을 빼앗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리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니스탄, 예멘 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들 에서 《테러보통을 소탕》한 다는 구실밑에 감행하는 미국의 광란적인 무인기공습으로 수많 은 나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죽어 가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가 인간살육 에 미쳐넘어선 미국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단죄하며 인권유린 국, 악마제국에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있다. 세계도에서 반미성정을 호 소하는 목소리가 울려오고 미 국내에서도 정부의 침략정책에 항의하는 백만방파음이 높아가 고있는 때에 백악관을 거랑한 무인기가 날아들었다는 얘기가 돌았다.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세계최고수준의 경 호》를 자랑하는 백악관 비밀경 호국의 요원들이 무인기가 날아 오는 소리로 듣고 백악관당장을 넘어오느라 목격하고서도 속 수무적으로 변히 비라보고만 있 는 사실은 미국제비총을 아연케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무인기공습행은 날 이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다. 미국은 무인기 《미군의 생 명을 대신해서 천사》라고 공공연 히 떠들면서 무차별적인 무인 기공습행으로 《미군의 생 명》 대신에 무고한 민간인들의 목숨을 빼앗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리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니스탄, 예멘 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들 에서 《테러보통을 소탕》한 다는 구실밑에 감행하는 미국의 광란적인 무인기공습으로 수많 은 나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죽어 가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가 인간살육 에 미쳐넘어선 미국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단죄하며 인권유린 국, 악마제국에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있다. 세계도에서 반미성정을 호 소하는 목소리가 울려오고 미 국내에서도 정부의 침략정책에 항의하는 백만방파음이 높아가 고있는 때에 백악관을 거랑한 무인기가 날아들었다는 얘기가 돌았다.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세계최고수준의 경 호》를 자랑하는 백악관 비밀경 호국의 요원들이 무인기가 날아 오는 소리로 듣고 백악관당장을 넘어오느라 목격하고서도 속 수무적으로 변히 비라보고만 있 는 사실은 미국제비총을 아연케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무인기공습행은 날 이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다. 미국은 무인기 《미군의 생 명을 대신해서 천사》라고 공공연 히 떠들면서 무차별적인 무인 기공습행으로 《미군의 생 명》 대신에 무고한 민간인들의 목숨을 빼앗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리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니스탄, 예멘 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들 에서 《테러보통을 소탕》한 다는 구실밑에 감행하는 미국의 광란적인 무인기공습으로 수많 은 나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죽어 가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가 인간살육 에 미쳐넘어선 미국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단죄하며 인권유린 국, 악마제국에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있다. 세계도에서 반미성정을 호 소하는 목소리가 울려오고 미 국내에서도 정부의 침략정책에 항의하는 백만방파음이 높아가 고있는 때에 백악관을 거랑한 무인기가 날아들었다는 얘기가 돌았다.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세계최고수준의 경 호》를 자랑하는 백악관 비밀경 호국의 요원들이 무인기가 날아 오는 소리로 듣고 백악관당장을 넘어오느라 목격하고서도 속 수무적으로 변히 비라보고만 있 는 사실은 미국제비총을 아연케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무인기공습행은 날 이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다. 미국은 무인기 《미군의 생 명을 대신해서 천사》라고 공공연 히 떠들면서 무차별적인 무인 기공습행으로 《미군의 생 명》 대신에 무고한 민간인들의 목숨을 빼앗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리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니스탄, 예멘 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들 에서 《테러보통을 소탕》한 다는 구실밑에 감행하는 미국의 광란적인 무인기공습으로 수많 은 나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죽어 가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가 인간살육 에 미쳐넘어선 미국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단죄하며 인권유린 국, 악마제국에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있다. 세계도에서 반미성정을 호 소하는 목소리가 울려오고 미 국내에서도 정부의 침략정책에 항의하는 백만방파음이 높아가 고있는 때에 백악관을 거랑한 무인기가 날아들었다는 얘기가 돌았다.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세계최고수준의 경 호》를 자랑하는 백악관 비밀경 호국의 요원들이 무인기가 날아 오는 소리로 듣고 백악관당장을 넘어오느라 목격하고서도 속 수무적으로 변히 비라보고만 있 는 사실은 미국제비총을 아연케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무인기공습행은 날 이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다. 미국은 무인기 《미군의 생 명을 대신해서 천사》라고 공공연 히 떠들면서 무차별적인 무인 기공습행으로 《미군의 생 명》 대신에 무고한 민간인들의 목숨을 빼앗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리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니스탄, 예멘 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들 에서 《테러보통을 소탕》한 다는 구실밑에 감행하는 미국의 광란적인 무인기공습으로 수많 은 나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죽어 가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가 인간살육 에 미쳐넘어선 미국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단죄하며 인권유린 국, 악마제국에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있다. 세계도에서 반미성정을 호 소하는 목소리가 울려오고 미 국내에서도 정부의 침략정책에 항의하는 백만방파음이 높아가 고있는 때에 백악관을 거랑한 무인기가 날아들었다는 얘기가 돌았다.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세계최고수준의 경 호》를 자랑하는 백악관 비밀경 호국의 요원들이 무인기가 날아 오는 소리로 듣고 백악관당장을 넘어오느라 목격하고서도 속 수무적으로 변히 비라보고만 있 는 사실은 미국제비총을 아연케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무인기공습행은 날 이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다. 미국은 무인기 《미군의 생 명을 대신해서 천사》라고 공공연 히 떠들면서 무차별적인 무인 기공습행으로 《미군의 생 명》 대신에 무고한 민간인들의 목숨을 빼앗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리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니스탄, 예멘 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들 에서 《테러보통을 소탕》한 다는 구실밑에 감행하는 미국의 광란적인 무인기공습으로 수많 은 나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자주통일일일행동을 세차게 일일켜나가지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담화 발표

백두장 총련중앙상임위원 회 부위원장이 1월 28일 《연 합회의 호소를 받들고 자주 통일의 대로를 열기 위한 성서러운 애국투쟁에 떨쳐 나설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 화 는 경 에 하 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품어오르는 격정 과 환희속에 받아안고 온 거 려한 애국적 투쟁을 추구하고 대립 에 매달리던 언제까지도 불신과 대립을 해소할수 없고 관계개선도 이룩할수 없 는것이다. 온 겨레가 승화한 애국의 의지를 안고 조국의 자주정화통일을 위 해 슬한 피와 땀을 뿌리며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분열 70 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북남대결의 력사가 지속되면서 조국통일을 이룩하지 못하 고있는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남조선당 국의 이중적자세, 비열한 배신적당파들 은 우리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 는 7.4 공동성명에 맞닿음을 들었다. 하 지만 돌아앉아서는 《몇장의 성명애 운명 을 점칠수 없다.》느니, 《기대를 가지 지 말라.》느니 하고 악담판처럼 공동성 명을 뒤엎어놓은 용남 배신행위를 감행 하였다. 그리고는 《실력배양》과 《승조동일》을 대결정책으로 내걸고 이 세와 아합하여 반공화국도발과 북침전쟁 책동을 피논이 되어 날뛰었다.

북남관계의 대전환, 대변혁은 절대로 거역할수 없는 민족의 현실같은 지향 이며 시대의 엄숙한 요구이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이 바로 북남당국에 있다. 말로만 대화를 운운할것이 아니라 반공화국대결소정의 전면적조로 대화 와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성공적 진행을 적극 추동해야 한다.

실현은 대화의지를 펼치는 시적 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의사와 이익 을 반영하는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온당 치 못한 태도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보고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할것이다. 말로만 대화를 운운하며 반공화국대 결로 북남관계개선을 계속 저해하였는 가 아니면 민족의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새롭게 개선하는 길로 나오겠는가. 그 에 대한 대답은 남조선당국의 앞으로의 실 현행동에 명백히 드러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가 엄한 시선 으로 주시하고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은 정 철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 의 대로를 열어나가기 위 한 실천적문제들을 토 의한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 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 다고 강조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 체 재중조선인들은 조선민족 의 현실같은 현실을 반영한 이 호소문을 전폭적으로 지 지찬동한다고 하면서 성명 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신년사에서 천명하 신 조국통일구호와 중대제안 들은 온 민족이 통일애로 의 성서러운 투쟁에서 확고히 들어치고나가야 할 위대한 필성의 보금이다. 우리는 자주와 민주를 지향하는 남조선의 정당, 단 체들과 광범한 대중의 활동 에 굳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 내며 민족의 대단결과 자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 구 노력을 할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청태에 서 우리 민족끼리의 정사에 어긋나게 친미사대적행위들 이 계속 일어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뿐만아니라 인 간스펙기들과 미국단체의 반 공화국배라살포에 대해 《표 현의 자유》를 떠들며 비호 하고있고 있다. 성명은 온 겨레가 힘을 합 쳐 자주의 길로 달려나가자 고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막을것을 비롯하여 진보적인 정당, 단 체들은 물론이고 종교인사들까지 가리지 않고 무 차별로 탄압하였다. 나중에는 《세월》 초침물사건으로 생 폐같은 자식을 잃고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가족들에 대해 《북 의 사육을 나는 중부파의 연극》 이니 뭐니 하고 모독하는 야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자 식들의 억울한 죽음을 흘리는 피눈물조차 죄로 되는 바로 이 에 《표현의 자유》라는 간판 밑에 짓밟힌 남조선의 참혹한 인권실태이다.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짓밟 는 반역적, 《표현의 자유》를 떠들며면서도 《유신》독재 를 떠벌리려는 파쇼독재자들과 민심의 지지를 받들어 탄두하 다. 최근 남조선에서 현 당국의 동족대결정책과 반인민적악용 에 항거하는 각계의 투쟁이 더 욱 강화되고있는 속에 현 정권 자에 대한 지지율이 20%에선 을도 못바닥질것은 결코 우연 한 현상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반공화국배라살 포에 미쳐넘어선 인간스펙기들 에게는 무제한한 자유가 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인 민들에게는 초보적인 의사회현 의 자유마저 없다. 남조선당국 자들이 떠드는 《표현의 자유》란 바로 이런것이다. 본사기자 박 철 준

당도록 손이야 벌어야 벌어도 시원치 않을판에 제 자랑만 잔뜩 늘어놓았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너무도 격분한 남조선 각계는 리명박역도의 《회고록》을 두고 《어디없는 주정》, 《변협애 오 일관된 후안무치의 극치》 등으로 강력히 비난하고있다. 《회고록》을 내면서 《공무원법》을 위반한 역도를 당장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있다. 역도는 가족이나 미음같은 처지에 입다물고 야만되었는지 펠히 《회고 록》이 뭐요 하다가 도리어 회고탄임에 되었다. 리명박과 같은 추물이 《회고록》을 쓴다는것 가가만치만 자기 지적을 광고하려고 펠치없이 날다가 동내복신세가 된것은 더욱 풀겉겉이다. 역도가 어물러지고 않는 《회고록》을 써서 그 풀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 리명박을 써보려는것이 어떻게는가.

조 남 수

남조선인론들이 《무 인기에 혼쫌이 난 백악 관》, 《무인기공격에 무 방비로 로출》 등으로 미국 백악관에서 벌어진 무인기사건에 대해 보도 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 1월 26일 새벽 백악 관이 발각 뒤집히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소형 무인기가 어둠을 타고 날아들었다는것이다. 무인기는 백악관건물 벽에 부딪친 후 정원의 숲속에 떨어졌다. 비상경계령이 내려지 고 건물은 완전봉쇄되었 다. 경호요원들이 훑시나 았을지 모를 위험요소나 폭발물들을 찾아내려고 정 원을 샅샅이 뒤지며 들 어치고 건물지붕우에 들 어 올라가 수색소동을 벌였다. 무려 6시간동안 이나 북다소동을 피우고 있을 때 무인기의 주인 이 나타났다. 정부 직원인 그가 취 미사야 무인기를 조종하 다고 실수로 백악관당장 을 넘겼다고 밝혀서야 소동이 가라앉았다. 이 사건으로 하여 지금 미국지 배충은 공포와 불안에 싸여있다. 해외를 돌아치던중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미국대통령 오바마 는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도의 통치위 기에 몰릴 때마 다 여론의 이목 을 탄대로 돌리기 위해 충격적 인 사건들을 조작하는것은 남조 선통치체제의 상투적수법이다.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의 최종 판결이 그것을 다시금 실증해 주 고있다. 지난 1월 22일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전 통합진보당 의원 리석기에 대한 남조선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었다. 결 과 내란음모나 지하혁명조직은 없었다는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되여 현 남조선집권세력의 비열 한 정치적음모와 극우보수언론 들의 광기적인 선전으로 실재한 것처럼 묘사되던 리석기내란음 모사건이 허락하지 그지없는 모 락구기하였다는것이 드러났다.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은 지난 《대통령》부정선거의 내막이 려이여 폭로되여 대중적인 반 《정부》투쟁이 불타오르자 심각 한 통치위기에 몰린 현 집권세 력이 지난 2013년 8월 어 닌남중예 흥두개 내밀듯 갑자기 돌고나온것이다. 당시 남조선 각계는 《대통령선거거부》, 《정보원해체》, 《유신독재부 활 반대》의 구호를 들고 반 《정부》투쟁의 불길은 세계지 지퍼 울리었다. 사태를 신속히 수습 하지 않는다면 위기가 《정권》 퇴진으로 이어질수 도 있다는것 을 직감한 남조선당국은 폭압의 칼날을 반 《정부》투쟁의 앞장 서 선 통합진보당에 들리었다. 요란한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 여 민심의 주추를 거기에 쏠리 게 하고 통합진보당은 물론 그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죽어 가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가 인간살육 에 미쳐넘어선 미국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단죄하며 인권유린 국, 악마제국에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있다. 세계도에서 반미성정을 호 소하는 목소리가 울려오고 미 국내에서도 정부의 침략정책에 항의하는 백만방파음이 높아가 고있는 때에 백악관을 거랑한 무인기가 날아들었다는 얘기가 돌았다.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세계최고수준의 경 호》를 자랑하는 백악관 비밀경 호국의 요원들이 무인기가 날아 오는 소리로 듣고 백악관당장을 넘어오느라 목격하고서도 속 수무적으로 변히 비라보고만 있 는 사실은 미국제비총을 아연케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무인기공습행은 날 이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다. 미국은 무인기 《미군의 생 명을 대신해서 천사》라고 공공연 히 떠들면서 무차별적인 무인 기공습행으로 《미군의 생 명》 대신에 무고한 민간인들의 목숨을 빼앗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리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니스탄, 예멘 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들 에서 《테러보통을 소탕》한 다는 구실밑에 감행하는 미국의 광란적인 무인기공습으로 수많 은 나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죽어 가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가 인간살육 에 미쳐넘어선 미국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단죄하며 인권유린 국, 악마제국에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있다. 세계도에서 반미성정을 호 소하는 목소리가 울려오고 미 국내에서도 정부의 침략정책에 항의하는 백만방파음이 높아가 고있는 때에 백악관을 거랑한 무인기가 날아들었다는 얘기가 돌았다.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세계최고수준의 경 호》를 자랑하는 백악관 비밀경 호국의 요원들이 무인기가 날아 오는 소리로 듣고 백악관당장을 넘어오느라 목격하고서도 속 수무적으로 변히 비라보고만 있 는 사실은 미국제비총을 아연케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무인기공습행은 날 이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다. 미국은 무인기 《미군의 생 명을 대신해서 천사》라고 공공연 히 떠들면서 무차별적인 무인 기공습행으로 《미군의 생 명》 대신에 무고한 민간인들의 목숨을 빼앗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리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니스탄, 예멘 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들 에서 《테러보통을 소탕》한 다는 구실밑에 감행하는 미국의 광란적인 무인기공습으로 수많 은 나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평화적주민들이 무참히 죽어 가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가 인간살육 에 미쳐넘어선 미국의 극악한 범죄행위를 단죄하며 인권유린 국, 악마제국에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있다. 세계도에서 반미성정을 호 소하는 목소리가 울려오고 미 국내에서도 정부의 침략정책에 항의하는 백만방파음이 높아가 고있는 때에 백악관을 거랑한 무인기가 날아들었다는 얘기가 돌았다.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세계최고수준의 경 호》를 자랑하는 백악관 비밀경 호국의 요원들이 무인기가 날아 오는 소리로 듣고 백악관당장을 넘어오느라 목격하고서도 속 수무적으로 변히 비라보고만 있 는 사실은 미국제비총을 아연케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무인기공습행은 날 이 갈수록 횡포해지고있다. 미국은 무인기 《미군의 생 명을 대신해서 천사》라고 공공연 히 떠들면서 무차별적인 무인 기공습행으로 《미군의 생 명》 대신에 무고한 민간인들의 목숨을 빼앗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리아와 파키스탄, 아프리카니스탄, 예멘 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들 에서 《테러보통을 소탕》한 다는 구실밑에 감행하는 미국의 광란적인 무인기공습으로 수많 은 나성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이 정치적희생물 이 되었다. 이번 사건최종 판결로 남조선집권세력이 들고 는 《엑스썬더》들이 다 무너 지자 각계는 《도기에서 불을 찾은 사건》이라고 격분을 터 지었다.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은 이번 판결로 내란음모도 지 하혁명조직도 없었다는것이 거 들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전 권세력이 정부원선선거개입사건 을 뒤어 버리고 통치위기를 수습 하기 위해 사수 푸레대는 정치 적모략을 꾸며대고 폭로단 려하였다. 지금 전 통합진보당 성원들은 리석기내란음모사건 을 믿고도 자기 당을 강제해산 시킨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인론들은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이 정치적 보복과 통치위기를 위한 집 권세력의 자작구미였다는 각계 의 주장을 널리 보도하고있다. 법률관계자들도 이번 《대법 원》의 판결로 존재하지도 않는 지하혁명조직을 운운하며 진보 정당을 강제해산시킨 《헌법재 판소》의 강제적판결은 사라 졌다고 평하였다.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의 전과 정은 남조선보수세력야말로 집 권유지를 위해서라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중복》 로 몰아 당치는데로 처형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에 빠뜨리는데 도 서슴지 않는 추악한 범죄도 락군들이며 회색의 폭군, 극악 한 파쇼판들이라는것을 다시금 독촉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이 정치적희생물 이 되었다. 이번 사건최종 판결로 남조선집권세력이 들고 는 《엑스썬더》들이 다 무너 지자 각계는 《도기에서 불을 찾은 사건》이라고 격분을 터 지었다.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은 이번 판결로 내란음모도 지 하혁명조직도 없었다는것이 거 들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전 권세력이 정부원선선거개입사건 을 뒤어 버리고 통치위기를 수습 하기 위해 사수 푸레대는 정치 적모략을 꾸며대고 폭로단 려하였다. 지금 전 통합진보당 성원들은 리석기내란음모사건 을 믿고도 자기 당을 강제해산 시킨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인론들은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이 정치적 보복과 통치위기를 위한 집 권세력의 자작구미였다는 각계 의 주장을 널리 보도하고있다. 법률관계자들도 이번 《대법 원》의 판결로 존재하지도 않는 지하혁명조직을 운운하며 진보 정당을 강제해산시킨 《헌법재 판소》의 강제적판결은 사라 졌다고 평하였다.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의 전과 정은 남조선보수세력야말로 집 권유지를 위해서라면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중복》 로 몰아 당치는데로 처형하고 북남관계를 파국에 빠뜨리는데 도 서슴지 않는 추악한 범죄도 락군들이며 회색의 폭군, 극악 한 파쇼판들이라는것을 다시금 독촉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막을것을 비롯하여 진보적인 정당, 단 체들은 물론이고 종교인사들까지 가리지 않고 무 차별로 탄압하였다. 나중에는 《세월》 초침물사건으로 생 폐같은 자식을 잃고 통곡하며 몸부림치는 가족들에 대해 《북 의 사육을 나는 중부파의 연극》 이니 뭐니 하고 모독하는 야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자 식들의 억울한 죽음을 흘리는 피눈물조차 죄로 되는 바로 이 에 《표현의 자유》라는 간판 밑에 짓밟힌 남조선의 참혹한 인권실태이다.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짓밟 는 반역적, 《표현의 자유》를 떠들며면서도 《유신》독재 를 떠벌리려는 파쇼독재자들과 민심의 지지를 받들어 탄두하 다. 최근 남조선에서 현 당국의 동족대결정책과 반인민적악용 에 항거하는 각계의 투쟁이 더 욱 강화되고있는 속에 현 정권 자에 대한 지지율이 20%에선 을도 못바닥질것은 결코 우연 한 현상이 아니다.

남조선에서 반공화국배라살 포에 미쳐넘어선 인간스펙기들 에게는 무제한한 자유가 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인 민들에게는 초보적인 의사회현 의 자유마저 없다. 남조선당국 자들이 떠드는 《표현의 자유》란 바로 이런것이다. 본사기자 박 철 준

당도록 손이야 벌어야 벌어도 시원치 않을판에 제 자랑만 잔뜩 늘어놓았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너무도 격분한 남조선 각계는 리명박역도의 《회고록》을 두고 《어디없는 주정》, 《변협애 오 일관된 후안무치의 극치》 등으로 강력히 비난하고있다. 《회고록》을 내면서 《공무원법》을 위반한 역도를 당장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있다. 역도는 가족이나 미음같은 처지에 입다물고 야만되었는지 펠히 《회고 록》이 뭐요 하다가 도리어 회고탄임에 되었다. 리명박과 같은 추물이 《회고록》을 쓴다는것 가가만치만 자기 지적을 광고하려고 펠치없이 날다가 동내복신세가 된것은 더욱 풀겉겉이다. 역도가 어물러지고 않는 《회고록》을 써서 그 풀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 리명박을 써보려는것이 어떻게는가.

조 남 수



진보민주세력탄압에 항거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위대한 선군정치로 시대와 역사앞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불세출의 령장

인류자주위업의 역사적전환을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오늘 우리 공화국은 불세출의 백두산강국으로서의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세계 만방에 떨치고있다. 우리 조국의 지위와 국력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최상의 높이에 올라섰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조산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있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류는 우리 공화국을 가리켜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의 확고한 주권을 가지고 자기 할 소리를 다하는 군사강국》, 《세계정치무대에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국제정치흐름을 주도하는 정치사상강국》이라고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오늘의 이 경이적인 현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도업적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다.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전개하신 선군정도의 날이 있어 우리가 우리 공화국의 강대발전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서 역사적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세계 90년대에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과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지켜냈을뿐 아니라 우리 나라를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계 90년대는 우리 공화국의 운명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울려나오던 함으로 얼룩진 시기였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이 붕괴되고 동서맹연은 조미대결로 압축된 상태였다.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협하는 가파른 우리 사회주의를 없애버리려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의

《불과》는 시간문제라고 하면서 패배를 몰랐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주적인, 자주적군위병으로 승리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던 진보적인류는 갈마드는 우려와 불안 을 숨기지 못하였다.

조선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온 세계가 조선을 주시하였다.

엄혹한 역사적조건에서 어떤 정치방식이든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인류자주위업의 전도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나섰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천리헤안의 예지와 비장한 정치적안목으로 격변하는 정세의 추이와 우리 혁명발전의 필연적 요구를 명철하게 꿰어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며 혁명위업전반을 전진시켜나갈 결단을 내리시고 단연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였다.

주제 84(1995)년 1월 1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실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다박출초소에 있던 역사적인 현지지도의 길에 오시였다. 그날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개하고 또 걸으신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는 단순한 군부대들의 전투준비상태에 대한 시찰의 길 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우리 조국과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할 수 없을뿐 아니라 우리 인민이 당국자의 치욕을 면할 수 없게 하여 우리 를 애써보려는 미제와는 정반대의 경로를 걸어갈 때만 싸우려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나선 길이었다. 조국과 민족을 살리고 인류운명과 세계평화를 수호 하기 위한 선군정도의 대용량이다.

사회주의수호와 그 반영도 무적의 군

력강화에 있다. 바로 이것이 멀고 험한 전진길을 걷고 또 걸으신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간직된 확고한 신조였다.

백두의 담력과 기상, 뛰어난 지략을 천품으로 지니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도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며 강경으로 맞받아나가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총을 내들면 대포를 내대시는 우리 장군님의 철의 담력과 배짱으로 행동들이를 휘두르며 분별없이 날뛰던 미제호전파들은 기가 질리어 어 제할바를 모르고 헤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력한 군사력의 담보밑에 평화무쌍한 외교외교력으로 조미 회담을 편전승리로 이끄시였다. 회담 때마다 상대측의 진의도와 약점들을 정확히 꿰뚫어보시고 우리가 틀어쥐고나 갈 원칙적문제들과 전술적대화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위업전반을 전진시켜나갈 결단을 내리시고 단연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였다.

주제 84(1995)년 1월 1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실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다박출초소에 있던 역사적인 현지지도의 길에 오시였다. 그날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개하고 또 걸으신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는 단순한 군부대들의 전투준비상태에 대한 시찰의 길 이 아니었다.

우리를 적대시하던 서방나라들도 견해를 달리하고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뛰어난 정치실력을 떠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이다. 이에 대해 서방언론들까지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기일은 판단이 정확하고 결심이 단호하며 일단 마음을 굳힌 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외교술을 개념화한다면 선군의교로 정의할 수 있다. 대외의 교에서 그는 북조선의 특색은 김정일의 교의 커다란 승리이다.》라고 찬탄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도에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수호하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왔다. 우리 공화국은

불세출의 강국으로 전변되었다.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던 미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조선반도를 거점으로 하여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려던 미제의 침략정책은 파산되고 인류자주위업수행의 전란적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보면서 제국주의자들과의 회의를 결속해서 전진하는 인류자주위업은 오직 장군님께서 하신 업적에 의거하여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장군님께서 하신 업적에 의거하여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보면서 제국주의자들과의 회의를 결속해서 전진하는 인류자주위업은 오직 장군님께서 하신 업적에 의거하여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장군님께서 하신 업적에 의거하여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였기에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혁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신것이 있지만 정당하며 혁명위업, 인류자주위업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였기에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확정짓는다

선군은 우리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혁명 실천이였으며 정치 리념, 정치방식이었다.

선군 정도 업적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아올린 업적중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혁명명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 니다.》

위인의 정치실력은 준엄한 시기에 검증되는 법이다.

지난 세계 90년대는 우리 혁명에서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민족의 대국상과 권력은 자연재해, 국도에 이른 제국주의자들의 무모한 반공화국압살책동 ...

자주적인민으로 사나 아니던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나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피눈물의 역사를 보내고 맞이한 주제 84(1995)년 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단행하신 다박출초소에 대한 역사적인 현지지도는 선군정도의 전면적실현을 내외에 알리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실 장군님의 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부출이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은 백전백승의 한 걸음을 걸었다.

《E. C》에서 맞을 울리고 전진하여 온 우리 혁명의 역사는 선군에 모든 승리와 영광, 부강번영과 행복이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누구나 쉽게 걸을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세계를 둘러보라. 원유자원이 풍부하여 돈더미에 올라앉은 나라로 불리우던 이라크나 리비아가 무엇때문에 하루 아침에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공세에 쓸데없이 되었겠는가. 총대가 약하였기때문이다. 강력한 군력이 없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수호할수 없다면 나라의 자주적발전도 이룩할수 없다.

우리 나라의 반미대결전의 전초선이다. 제국주의자들의 포위속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백두산절세위업의 선군 사상과 업적은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위대한 강군님의 거대한 위업이다.

우리 인우님께서 해주하시는 선군길은 결코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만을 지키는 길이 아니다. 선군정치는 세계의 정의를 옹호하고 자주의 새 세계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선군정치는 세계의 정의를 옹호하고 자주의 새 세계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선군정치는 세계의 정의를 옹호하고 자주의 새 세계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20년전 그날 다박출초소를 찾으면서 선군으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할 철칙의 신념을 가져다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거대한 위업이다.

우리 인우님께서 해주하시는 선군길은 결코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만을 지키는 길이 아니다. 선군정치는 세계의 정의를 옹호하고 자주의 새 세계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선군정치는 세계의 정의를 옹호하고 자주의 새 세계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우리 인우님께서 해주하시는 선군길은 결코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만을 지키는 길이 아니다. 선군정치는 세계의 정의를 옹호하고 자주의 새 세계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선군정치는 세계의 정의를 옹호하고 자주의 새 세계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선물들이 갖는 다함없는 흠모의 세계

김정일동지께 매혹된 나는 55분이라는 시간이 어느새 지나갔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마침내 담담하게 끝나고 이어서 재어온 미소를 담으시고 우리와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 나는 운운이 헤매며 힘겨운 한 심정이였다. 김정일 동지는 진정 태양과 같은 분이시였다.

이것은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인격적품목에 완전히 매혹된 로씨야기술훈공화국 연구소 총지배인 솔리노브가 격찬 심장의 고백이었다. 그 격찬에도 시작점이 있었다. 솔리노브는 한생을 과학연구사이에 바쳐온 유리기공공

학자이다. 쓰련이 붕괴된 후 그는 정의와 진리를 모색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왔다. 우리 나라도 여러차례 방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말씀하신 《주체사상》의 랍심을 세 번으로 한 것은 김정일동지의 평등성에 주체사상을 따라 전진하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의미하며 그 면들에 세로줄들이 새겨져있는것은 주체사상을 발전시켜나가는 김정일동지의 수 많은 불후의 고전적작품들을 의미한다. 랍심에 아무런 장식 없이 무명성을 보장한 것은 주체사상을 따르는 우리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과 조선인민과의 우의를 상징하기 위해서였다.》

그후에도 솔리노브는 연구 집단의 공동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든 수정공예 《혁사의 수배바퀴를 전진시키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선물로 드렸다. 그들은 선물에서 태양과 그 해살을 받는 마차와 낫과 붓을 형성하고 그 주위에 수배바퀴를 놓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상징하는것이 마차와 낫과 붓은 조선로동당을, 수배바퀴는 혁사를 의미하는것이라고 하였다.

진정 우리 장군님의 인간적품목은 만사공평의 입장을 여세계를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것이였다. 그후에도 솔리노브는 연구 집단의 공동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든 수정공예 《혁사의 수배바퀴를 전진시키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선물로 드렸다. 그들은 선물에서 태양과 그 해살을 받는 마차와 낫과 붓을 형성하고 그 주위에 수배바퀴를 놓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상징하는것이 마차와 낫과 붓은 조선로동당을, 수배바퀴는 혁사를 의미하는것이라고 하였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건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것은 그이의 가장 큰 공적이다. 지난 세계가 말일 조성된 정세를 굳이 통찰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워 난국을 타개해 나갈 단호한 의지를 지니시고 1995년 1월 1일 다박출초소를 찾으신것이였다.》

김정일동지는 선군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부강번영의 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민족의 존엄을 반방에 떨쳐주시는 선군조선의 위대한태양이시다. 나이지리아 김정일-김정일의

상정하기 위해서였다.》

그후에도 솔리노브는 연구 집단의 공동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든 수정공예 《혁사의 수배바퀴를 전진시키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선물로 드렸다. 그들은 선물에서 태양과 그 해살을 받는 마차와 낫과 붓을 형성하고 그 주위에 수배바퀴를 놓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상징하는것이 마차와 낫과 붓은 조선로동당을, 수배바퀴는 혁사를 의미하는것이라고 하였다.

진정 우리 장군님의 인간적품목은 만사공평의 입장을 여세계를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것이였다. 그후에도 솔리노브는 연구 집단의 공동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든 수정공예 《혁사의 수배바퀴를 전진시키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선물로 드렸다. 그들은 선물에서 태양과 그 해살을 받는 마차와 낫과 붓을 형성하고 그 주위에 수배바퀴를 놓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상징하는것이 마차와 낫과 붓은 조선로동당을, 수배바퀴는 혁사를 의미하는것이라고 하였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조건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것은 그이의 가장 큰 공적이다. 지난 세계가 말일 조성된 정세를 굳이 통찰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워 난국을 타개해 나갈 단호한 의지를 지니시고 1995년 1월 1일 다박출초소를 찾으신것이였다.》

김정일동지는 선군으로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부강번영의 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민족의 존엄을 반방에 떨쳐주시는 선군조선의 위대한태양이시다. 나이지리아 김정일-김정일의

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주는 절세의 애국자

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일평등도자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조선의 만민평등의 찬양찬미 노래를 담보하는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그렇다. 김일성 민족, 김정일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배설의 선군보급을 역세게 물려 주신다고고있기때문이다.

민족적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은 누가 지켜주는것을, 돈을 주고 살수 있는것도 아니다. 오직 총대를 앞세우는 집단이 무력강권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기를 꺾고 조국의 존엄을 빛나이는 길이다. 선군조선의 자랑찬 로정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지난 세계 90년대 우리 나라에는 엄혹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다. 일국화면 세계를 꿈꾸는 미국에 있어서 유일한 사

회의가장중부리고 자주의 성세인 우리 나라는 눈이 든가 시였다. 끈질긴 경제와 군사적위업이 겹겹을 뒤따랐고 사회주의붕괴의 어지러운 바람이 산산하게 불어치는 속에 적들은 《북조선의 붕괴도 시간문제》라고 떠들었다. 립정도 후방도 없는 전진, 적들의 완전한 포위속에 모든 난관을 단독으로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더욱 역세게 들어치신것은 선군의 보급이였다. 숨죽은 공장을 뒤에 두고 단연고 인민군대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 오르신 우리 장군님을 온 세계가 주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84(1995)년의 새해 첫아침 다박출초소를 현지시찰하시였다 는 보도가 세상에 공개되자 적들은 아연실색하였다. 적들은 장군님께서 미제일부대를 방문하시였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공포에 떨었다.

위대한 선군명장의 손길아래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현대적대업공중수단과 방위수단을 다 갖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튼튼히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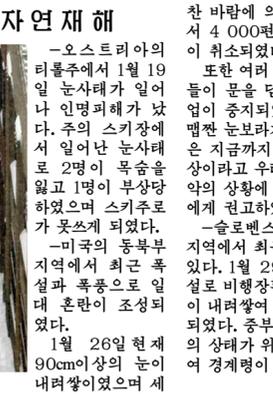
선군적인류는 선군정치를 어떤 조건이나 시련속에서도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반제국주의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갈수 있었기라고 개관하였다. 또 하나의 실례가 있다. 지난 해 12월 30일 뉴저시주에서 경찰이 최경은 흑인을 총으로 쏘아죽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사건발생당시 피해자는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려던 차에 내리다가 경찰이 무릎대고 총 쏘란에 맞아 숨졌다고 한다.

영문도 모르게 흑인들이 경찰들의 총탄세례를 받는 수는 수다하다. 지난해에는 퍼스스스태만 봐도 그렇다. 문제는 미사법당국 경찰들의 살인행위를 《정당방위》로, 개화제를 《피해자》로 흑백을 전도하고있는것이다.

미사법당국의 전횡은 경찰들이 저지른 흑인살해행위를 비호 두둔하는데만 그치지 않고있다. 최근에 알려진것에 의하면 미련방수사국 등 50개의 사법계정판이 약 2~3년동안 케미다정부를 리용해 미국시민들의 주재부들의 사소한것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감시해왔다고 한다. 이것은 모욕상 사생활 및 재산권을 보호한다 하여 미국헌법에 저촉되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미국에서 폭설



미국에서 폭설

찬 바람에 의해 눈보라가 일면서 4 000명이상의 비행기운행이 취소되었다.

또한 여러 주들에서 정부기관들이 문을 닫고 학교들이 수 없이 중지되었다. 뉴욕시당국은 뱀뱀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려는 지금까지 이해보지 못한 현상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것을 시민들에게 권고하였다.

솔로몬스키의 중부와 서부지역에서 최근 폭설피해를 입고 있다. 1월 29일부터 계속된 폭설로 비행장할주로들에 많은 눈이 내려쌓여 비행기운행이 취소되었다. 중부지역에서는 도로들의 상태가 위험해졌고 가파른 눈이 경계령이 내려졌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는 누가 앉아야 하는가

세상에 미국만큼 《인권운호》, 《만민평등》에 대해 떠드는 나라는 없다. 그럴뿐더러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시비하기를 무척 좋아한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처사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되고있다. 미국에는 그럴만 한 자적도 명분도 없기때문이다.

얼마전 미국의 어느한 신문과 방송이 8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자중 70%가 미국은 아직도 피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나라라고 하면서 흑인인 현 집권자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이후 인종차별이 더욱 심해졌다고 대답하였다.

흑인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되고말았다. 《지금 미국에 필요한것은 변화》라고 웨치며 사람들을 유혹하여 흑인으로서의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 는 이에 대해 전하면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국제사회는 미국사회의 인종차별이 매우 위험한 계선에 이르렀으며 사회적 사헌폭탄의 초점이 활각되기 시작했다는것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25%나 적은 입장을 받고 소년으로 성행하고있으며 판파나모미해군기감옥에서 비법적으로 감금된 사람들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란국회 국가안전 및 대외정책위원회 부위원장 파르스 투신파의 회견에서 미국이 《인권문제》를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하고있다고 하면서 세계인민들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정객들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데 대해 잘 알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밖에도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서의 착취한 인권유린상황을 폭로탄정보국의 고문법정을 유엔 인권리사회 인건으로 상정시켜 책임있는자료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가장 야수적이고 중세적인 방법을 적용한것으로 하여 세계도처에서 규탄을 받고있는 미중앙정보국의 고문행위는 마땅히 국제공동체의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권재판정의 피고석에 누가 앉아야 하는가는 더욱 명백해지고있다. 본사기자 박승영

미국 인권유린행위는 이뿐이 아니다. 최근 국제문제전문가들에 의하여 미국에서 소수인종 및 민족들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보장을 위한 국제규범들을 위반하고있는 사실들이 수많은 내리다가 경찰이 무릎대고 총 쏘란에 맞아 숨졌다고 한다.

영문도 모르게 흑인들이 경찰들의 총탄세례를 받는 수는 수다하다. 지난해에는 퍼스스스태만 봐도 그렇다. 문제는 미사법당국 경찰들의 살인행위를 《정당방위》로, 개화제를 《피해자》로 흑백을 전도하고있는것이다.

미사법당국의 전횡은 경찰들이 저지른 흑인살해행위를 비호 두둔하는데만 그치지 않고있다. 최근에 알려진것에 의하면 미련방수사국 등 50개의 사법계정판이 약 2~3년동안 케미다정부를 리용해 미국시민들의 주재부들의 사소한것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감시해왔다고 한다. 이것은 모욕상 사생활 및 재산권을 보호한다 하여 미국헌법에 저촉되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미국 인권유린행위는 이뿐이 아니다. 최근 국제문제전문가들에 의하여 미국에서 소수인종 및 민족들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보장을 위한 국제규범들을 위반하고있는 사실들이 수많은 내리다가 경찰이 무릎대고 총 쏘란에 맞아 숨졌다고 한다.

영문도 모르게 흑인들이 경찰들의 총탄세례를 받는 수는 수다하다. 지난해에는 퍼스스스태만 봐도 그렇다. 문제는 미사법당국 경찰들의 살인행위를 《정당방위》로, 개화제를 《피해자》로 흑백을 전도하고있는것이다.

미사법당국의 전횡은 경찰들이 저지른 흑인살해행위를 비호 두둔하는데만 그치지 않고있다. 최근에 알려진것에 의하면 미련방수사국 등 50개의 사법계정판이 약 2~3년동안 케미다정부를 리용해 미국시민들의 주재부들의 사소한것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감시해왔다고 한다. 이것은 모욕상 사생활 및 재산권을 보호한다 하여 미국헌법에 저촉되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